

되어지는 전도

디모데후서 2:1-2

양정환 목사님

세계렘넌트대회 이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한다. 메시지 중에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못 해도 된다 했으니까. 평상시에는 안 붙잡다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란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일보다, 공부보다, 꼭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수준에서 단어를 써 보겠다.

서론 : 혼묵, 성충, 하행시

혼묵이다. 요즘 시대가 혼자 말먹는 시대다. 혼밥, 혼술, 혼어, 혼자 여행하는 것이다. 중고 렘넌트들이 함께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묵상하는 혼묵을 하시기 바란다. 성충이다. 성령충만한 시간, 혼자서 성령충만 시간, 하나만 더 하자. 하행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나도 대학사역을 20년을 했다. 전문 사역을 쫓았다. 아무리 봐도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1)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속4:6,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속할 수 없다. 조금은 하겠지만 지속은 못한다. 이 답을 찾고 대학에 오시기 바란다. 내가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다 같이 이것을 인정한다. 이 힘이 필요하다. 많은 산업인, 교수님들을 만난다. 다 같이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 비밀이 없으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진다. 그래서 이 속에서,

(2) 갈2:20 날마다 누리고,

(3)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비밀을 찾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갱신도 하고, 믿음의 도전도 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이 비밀이 있어야 한다.

사단은 이게 안 되도록 굉장히 방해한다. 되면 사단 입장에서 큰일이 나기 때문에. 창41:38,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내가 한번은 묵상을 하고 있었다. 마6:32-33을 묵상하고 있는데, 큰 트럭이 지나갔다. 라디오도 엄청 크게 틀어놨다. 묵상하고 있는데 트로트 노래가 나왔다. "뽀이다. 뽀이 좋고 맛도 좋은 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뽀이다." (웃음) 세 번을 이리다가 내가 왜 이리저리 하면서 바꿨다. 복음이다. 뽀이 좋고 맛도 좋은 복음이다. 나도 이런데 렘넌트들이 얼마나 힘들겠다. 이 속에서 일하고 사역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한계가 온다. 며칠 전에도 묵상했다.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갈, 갈, 갈 갈아요" 또 헛갈리는 것이다. '갈, 갈, 갈 제자.' 그래서 재해석했다. 복음으로 갈을 가는 제자. 혼자 있을 때, 전도 이전에, 사역 이전에, 공부 이전에, 렘넌트들이 자신만의 성령충만을 찾아 누리기를 바란다.

불교방송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치유를 어떻게 받는지 내용이 나왔다. 방법이 간단하다. 석 달 동안 하는데, 각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했다. 방식 하나 주고 문을 밖에서 잠갔다. 명상하라는 것이다. 뭘 명상하라는 것인가? 그것부터 명상하라는 것이다. 너무 힘들다. 대소변도 안에서 해야 한다. 밥 줄 때만 나온다. 그것도 채식이다. 그 안에서 하루에 108배를 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3개월 하고 나온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다.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힐링이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데 팬찮았느냐 하는데, 수준높게 말했다. 더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에어컨 받아들이면 되지. 아무튼 이 사람이 또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갇히 하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치유를 한다. 어떤 지역에는 원불교 유치원이 있는데, 사립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줄을 서서 아이를 보내려고 한다. 저 비싼 곳에 왜 저렇게 줄을 서서 보내려고 하나 싶어서, 학부모인 척 하고 가 봤다.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는데, 딱 하나가 틀렸다. 매일 아침마다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아이들에게 10분 씩 명상을 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치고 떠들었는데, 분위기가 잡히니까, 4살 짜리가 방석 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명상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하니깐 아이가 10분 씩 명상을 한다. 4살 짜리가 눈물을 흘린다. 부모에 대해서 명상하다가 눈물을 흘린다. '이게 뭐지?' TV에 보면 말 안 듣는 아이가 바뀌지 않나. 그것을 보고, 집에 가면 장난하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명상한 것을 가지고 가서,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하니깐, 당장 영적인 문제를 부모들이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줄을 서서 보낸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꼭 찾아내라. 피아노를 치면서 성령충만, 찬양하면서 성령충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것을 찾아내라. 나도 나만의 것이 있다.

본론 : 5가지 기초

이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야 되겠다. 대학사역을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학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5년 전의 일이다. 정말 대학사역이

내 현장과 맞을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1년 동안 450개 대학을 순회했다. 순회하면서 많은 학생도 만나고 사역자들도 만나고, 아무도 없는 대학의 사각지대도 가 보았다. 순회를 했다. 정말 맞을까. 어떤 대학생을 만났더니, 나를 만나서는 평생 우는 것이다. 자기가 지교회 담당자인데 자기 혼자라는 것이다. 7년을 버텼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다는 것이다. 내가 7년만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갑다고 우는 것이다. 전하더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힘내라 하고 껌질방 가서 자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왜 이렇게 되었나 싶었다. 그래서 순회하고, 한 번 더 돌아보자 해서, 2년 더 전국 대학을 순회했다. 그리고 결론이 났다. 대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것, 그리고 대학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복음을 제시해본 적이 없다. 80%가 그렇다. 졸업할 때까지 복음 제시를 한 명에게도 안 해 본 것이다. 대학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 전달해야겠다 싶어서 점검을 했다. 양육을 받아보았느냐, 해 보았느냐 했더니, 해 본 사람은 거의 없고 받아본 사람도 거의 없다. 다락방을 해 봤느냐 하니깐, 농담을 하는 것이다. "다락방요? 풍문으로 들어봤어요." 회복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도와야겠느냐 고민하면서 기획팀과 함께, 성경적 전도의 5기조를 대학에 맞게 도와줘야겠다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이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1. 개인전도운동

그 중의 개인전도운동이다. 전도하기 이전에, 생명운동 해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붙잡아야 한다.

(1)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주시기로 작정하고 선물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어떤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50미터를 따라가 봤다. 50미터를 가는 동안 계속 머리를 빚고 다듬고 돈을 세고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딱 달려오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다.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 감격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 돈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되고 잘 생겨도 안 되고 못 생겨도 안 되고 어떻게든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중학생 때 여름에 수영을 하러 갔다. 강에서 수영을 했는데, 친구가 먼저 옷을 벗고 들어갔고, 내가 2초 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소용돌이에 빠져 버렸다. 짧은 순간인데 너무 갈등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든 안 되는 것이다. 들어가면 같이 죽겠고, 안 들어가면 친구가 죽겠고, 갈등 속에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외국인인 뛰어 들어서 건져냈다. 이미 혼수상태였다. 내가 늘 그 친구를 위해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혼수상태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일주일 있다가 회복 안 되면 죽는다는 것이다. 산소호흡기를 뿔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동안을 울었는데, 이리다가 이 친구가 복음 못 듣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귀에 대고 그냥 복음을 전했다. 영접하겠느냐 물어보지도 못한다. 내가 쫓 영접기도를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1주일 뒤에 죽었다. 내 개인적인 상처일 수도 있지만, 예수생명에 대한 한, 복음에 대한 한,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가.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묵상을 하라고 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도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감사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 주변을 보라.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친족, 가족, 이웃이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를 두고 감격이 없다면 나 자신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붙잡기를 바란다.

(2)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3) 대학생들에게 주는 미션들이, 전도하기 전에 나와 관계된 대상자 명단부터 작성하라고 한다. 명단부터 적어라. 1년 동안 전도할 명단. 관계된 친구가 주변에 많다. 그것을 적어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한 친구에게 미션을 줬더니, 밤새 명단을 100명을 적어왔다. 그리고 작성한 것이다. 매일 정시기도하겠다는 것이다. 이틀만에 보니까 완전히 놀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정시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놀렸다는 것이다. 100명 제대로 기도하니까 두 시간 걸리더라는 것이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잠심 때가 걱정되더라는 것이다. 1시간 반을 했다. 저녁에 또 하려고 하니깐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2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명단 두고,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해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해주시고.." 이것만 하는데 20분 걸렸다고 한다. "고생이 많다. 역사하는 것도 좋지만,"

(4) 이어지었다. "작은 실천을 해 보라.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라. 책을 전달하든지, 키톱으로 메시지를 전하든지." 자기만의 실천을 하라고 했다. 한 학생이 불신자 엄마를 두고 찾아낸 작은 실천이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한 번도 안 하던 설거지를 22년 만에 하나가 엄마가 놀리더라는 것이다. 3일 하니깐, '그만 해라, 용돈이 없냐 하면서 놀렸다. 2주 동안 하나가 '진짜 왜 이러냐, 돈 필요하냐, 말로 해라.' 3주 하니깐 심각해졌다. '뭘 일 있냐. 진짜 필요한 게 있냐. 다 해 줄게.' 그때 말했다. '엄마에게 선물을 해 주고 싶다.' 갑자기 무슨 선물이나? 복음을 전해서 영접

지 한 것이다. 그리고 말했다. 작은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큰 실천이라는 것이다. (웃음) 설거지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싫다고 하는데도 보냈다. 몇 개월이 지났다.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모양이다. 그때 마침 이것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 해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고 한다. 중고생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와 작은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란다. 영혼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섬기면 삼사대가 망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보다 큰 사랑이 있겠는가. 이런 미션들을 전달하고 있다.

(5) 적어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영접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도 해 보고 팀으로도 해 보고 선생님도 학생들을 잡고 솔직히 말하라 했더니, 진짜 못 하겠다고 하더라. 어떤 대학생이 '도를 아십니까?' 하더라. 그래서 '알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서 길을 막고 말하는 것이다. 증산도였다. 몇 년 다녔느냐 물어봤더니 손가락 세 개를 퍼더라. 3년이 아니고 3개월이다. 눈에서 광선을 발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기를 떠나서 양육하려 갔는데, 22년 차 모태신앙이다. "솔직히 복음 전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것이다. 전한다 못 한다 차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렇지 않나 싶었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면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나 누가에게 붙여야 할지 아시지 않다. 무슨 일을 해도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 누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할지 하나님은 아신다. 복음 가진 바울에게 복음 들을 루디아를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조금만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이게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인데, 중고생들이 이런 체험과 기도를 하고 오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본게임을 펼 수 있다. 이것을 그나마 체험하고 청년이 되면 조용히 이것을 한다. 이게 안 되면 직장 가서 헤매고 방황한다. 생각이 없다. 이것이라도 하나가 대학이 많이 좋아졌다. 중고등부부터 기도하고 해 보시기 바란다.

2. 개인양육운동

개인양육운동이다. 이것을 EBS라고 한다. 개인양육을 하는 사람을 EBS요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영접했다면 양육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있다.

(1) 마9:35-38,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복음 속에 있으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절실하다. 초등학교 교사 50명을 데리고 캠프를 했다. 본캠프는 한 시간만 하도록 예비캠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분석하면서 정문 후문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하고, 팀을 나눴다. 데리고 오는 팀 영접하는 팀 풍선하트 만드는 팀 만들고 디미가 되어서 한 시간만 하자고 했더니, 너무 절묘하게, 장마였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른다. 다 나를 췌려보는 것이다. 이 장마에 무슨 추수할 것이 있느냐 하는 눈빛으로 나가라 했더니, 나가자마자 다 젖었다. 나는 우비를 입고 순회를 했는데, 풍선 만들다가 비에 다 젖고 우산 쓰고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더라. 교사들이 그러다가 돌아왔다. 가기 전과 후가 달랐다. 웃은 다 버렸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눈빛이 웃고 있다.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3분 하라고 한 간증을 30분 넘게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400명이 영접했다는 것이다. 50명 교사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장마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면서. 또 한 분 나와서 30분 간증을 했다. 메시지를 5분 밖에 못 했다. 나는 이것을 믿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다. 한 달 뒤에 조사해 보니까 양육은 10명 만 하고 있더라. 당연한 것이,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3, 4명 뿐이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EBS양육이 필요하다. 대학부를 맡았는데 새가족이 왔다. 다 관심이 없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밥먹고 놀고, 새가족은 왕따가 되어 있다. 스스로 교회 오고 싶어서 온 대학생인데, 얼마나 가슴에 불이 나던지. 시스템을 바꿔 버렸다. 새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처음 온 학생이 대학부 주보를 나눠주고 있더라. (웃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새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영혼 사랑이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세 명을 양육하고 있다. 나는 김포공항 쪽에 사는데, 한국체대 친구를 만난다. 양육은 15분 한다. "죄송해요, 목사님, 오늘 일이 있어요" 한 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죄송하다는 것이다. 하도 많이 겪으니까, "솔뚜껑이구나. 그릇이 크구나." 이라고 돌아온다. 한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세 시간을 썼다. 지난번에는 만나서 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메시지 듣게 하고 힘내라 하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양육은 아무도 몰라준다.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다. 갓난아이 똥오줌 같이주는 것과 같다. 그 아이들이 응답 받고 예배하고 승리하면, 그 가치는 헛되지 않다. 내 후배, 낙심한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 양육하시기 바란다. 예전에 한분이, 굉장히 바쁜데, 한 사람 양육을 꼭 해 달라고 했다. 할수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다. 상태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사고를 많이 쳤다. 부모도 포기할 정도의 삶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당연히 포기해 있고 굉장히 심각했다. '내가 바쁘니까 15분 만 양육을 하겠다. 하겠느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없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한다.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해 놓고 미리 전화도 해 놓고 갔다. 그런데 또 없다. 복음 아닌 율법이 올라오더라. '이게 지금 내가 바쁜데...' 정말 바쁘니까 꼭 약속 지켜야 한다 하고, 다음 주에 갔다. 10분 전에 전화를 하고 알겠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또 없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사이에 계단으로 내려갔다. 대화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도 못 하겠습니까.

본인도 부모도 포기했는데, 저도 포기할게요." 하나님이 한 단어로 답을 주시더라. "너는?" 너는 복음 알기 전에 되었느냐, 재보다 더 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복음 받고 바뀌지 않았느냐. 그때 요나의 심정이었다. 도망가고 양육하고, 도망가고 양육하고, 보통은 양육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시스템에 붙었는데, 오래 했다. 도망가고 양육하고, 너는 너는 하면서. 그런데 1년 뒤에 회복되었다. 교회 시스템에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이를 셋이나 낳고, 중직자 안수집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해 보시기 바란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2) 명단을 적어보라. 분명히 양육할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는 안 보였다. 앓은뱅이가 안 보였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인 것이다. 어떤 친구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거울 있지 않냐, 자기보고 하라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문이 열리더라. 명단을 작성해 보라.

(3) 아이를 낳았으면 젖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 복음편지 교재를 좀 준비를 하라. 대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것을 내것으로 만들어라.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시고 양육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복음편지는 읽어만 봐도 역사한다. 그러나 내가 먼저 홀로다락방을 해 보라. 영적 서밋의 시간,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보라. 복음편지로 정리해서 후배를 양육하고 낙심된 자를 양육하고 영접한 자를 양육해 보고 해라.

3. 다락방운동

다락방운동이다. 왜 운동인가? 처음에는 혼자 하지만, 나중에는 팀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락방은 다 중요하지만, 조장과 사역자가 중요하다. 다락방 안에 개인전도, 영접운동, 양육이 다 들어있지만 훈련하기 위해서 좀 나눴다.

(1)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조장이다. 중고생들이 선생님 모시고 조장이 되어서 다락방을 하라. 붕고 다락방, 카페 다락방, 파바 다락방, 하시기 바란다. 다락방은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루디아, 아손 같은 사람이 조장이다. 집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조장의 가장 key는 영적 분위기다.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이다. 갈렙 같은 사람이다. 막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 나이가 아직 젊다. 하나님이 아낙산지를 붙였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다. 조장이 미션이 있다. 다락방에 가니까 맨 앞에 CC가 있었다. 둘이서 만지고 장난치고 하나가 다락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장이 어느 날 쪽지를 썼다. "목사님,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본인 스토리를 50분 동안 이야기하더라. 딱 5분 복음 전하고, 성실대로 살아라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조장을 하려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다. '아무나 못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했더니, 진짜 훈련을 6개월 넘게 따라붙었다. 내가 오기 전에 연락 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분위기를 다 만들어놓았다. 가면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려 있었다. 스편지처럼 말씀이 빨려들어갔다. 나는 메시지를 주고 가 버린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튼을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한다. 빠진 학생들이 흐름 안 놓치도록 일일이 그 주간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장이 다락방 문도 열고 시간도 요일도 정하고, 교사나 사역자를 초청하면 된다. 조장의 미션이다. "네가 시간, 장소를 정해라, 조원 모아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라. 빵집이든 카페든 해 보라.

(2) 사역자는 결국 메시지다.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한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말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다른 미션이 많이 있다. 관심은 제자다. 누가 예비된 제자인가 하는 것이다. 다락방 안에 생명운동을 하면서도 또 다락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누가 사역자고 누가 조장이고 누가 EBS인지 찾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3년을 다락방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고 하더라. "다락방만 해서 그렇다." 다락방 파급단체다. 확산이 되어야 한다. 새끼 못 낳는 양이 100마리 있고 새끼 낳는 양이 한 마리 있으면 누가 나은가? 100마리가 이득인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다. 새끼 낳는 양이 낡는다. 제자가 생기는 재생산되는 다락방을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

결론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 이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한다.

(2)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다. 딤후2:2에, 충성된 자라고 했다. 램넛 리더가 램넛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1년 만 차이나도 선배다.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램넛 리더가 램넛를 이끌어야 한다. 초등학교도 되더라. 4, 5학년이 1, 2학년을 잡고 양육하더라. 충성된 자가 되고,

(3)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재생산이다. 제자에서 제자를 낳는 것이다. 중고 졸업하기 전에 제자를 남기고 가라. 대학에 오면 잘생긴 나를 만날 수 있다. (웃음) 아멘 안 하신다.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 맛을 보라는 것이다. 다락방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는 것이다. 나머지 다섯 기초가 더 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다.